

(756)

조선

주체108
(2019)

7





차례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평양에서 상봉하시었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	24
로선소년관창립 73돐 뜻깊게 경축	25
백성들이 자랑하는 조선시인	26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28
국토를 넓혀나간다	30
오석산의 영웅지배인	32
다양해지는 관광봉사	34
스물두번째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	38
아시아육구현명 여중육구의 날 운영	40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 진행	40

표지: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동지를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로 발행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조선을 국가방문하기 위하여 6월 20일 전용기
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습근평동지를 맞이하시었다.

평양국제비행장에는 평양을 방문하는
습근평동지를 뜨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들과 어린이들, 학생소년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낮 12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정초
의 뜻깊은 만남에 이어 습근평동지와 160여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두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정깊
은 인사를 나누시었다.

습근평동지는 고대하던 평양방문이 이루
어진 소감을 피력하면서 조선인민이 이렇듯
성대하게 환영해주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
에게 영접나온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을 소개하시었다.

습근평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두 나라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안내를 받으며
습근평동지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6월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평양에서 상봉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영접하시었다



습근평동지는 사열대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 습근평동지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어린이들, 학생소년들과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답례를 보내었다.

습근평동지가 탄 전용차는 모리찌쿨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으로 향하였다.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동지를 순안구역과 런못동, 룡흥네거리, 4. 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곳곳에서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함께 룡흥네거리에서 무개차에 옮겨타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 타신 무개차가 지나는 러명거리의 연도





조선인민에 대한 형제적중국인민의 따뜻한 친선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동지를 평양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인파가 설레이는 려명거리를 지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도착하였다.

에서 군중들은 사회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려정에서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영원불멸할 조중친선의 년대기에 진정한 우애와 단결의 장을 끊임없이 새겨가시는 조중

최고령도자동지들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더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는 시민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답례

를 보내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인파가 설레이는 려명거리를 지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도착하였다.

습근평 동지를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수도의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

에게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소개하시였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타신 차는 손에 손에 두 나라 국기와 꽃다발을 든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떠나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교 담소를 나누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방문하시여 습근평동지와 팡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환담을 하신 다음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6월 20일 오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방문하시어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환담을 하신 다음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어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외무상인 리용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동지가 참가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이며 판공청 주임인 정설상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의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양결지동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임인 하립봉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전략부장 송도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장 종산동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주임 묘화동지

가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습근평동지가 조선을 방문한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시고 이번 방문이 조중친선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결정적계기로 되며 새로운 활력에 들어선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습근평동지는 **김정은**동지와 또다시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면서 **김정은**동지와 조선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 무력기관의 간부들 그리고 평양시의 각계층 군중들이 따듯이 맞이해주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께서는 호상 자기 나라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통보하시고 그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명하시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협조관계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계속 활력있게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더더욱 의의깊게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들을 제의하시고 의견을 나누시였다.

쌍방은 또한 조중 두 당과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호상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 하며 고위급래왕의 전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심화시켜나가기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논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6월 20일 저녁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환영연회장소에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반갑게 맞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함께 연회장애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최고령도자동지들을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전체 당원들과 인민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중국인민의 따뜻한 우의의 정을 안고 온 습근평총서기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도 일치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쟁취 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총서기동지의 령도아래 중국공산당과 인민이 중화민족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거대한 성과를 거두리라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습근평동지가 답례연설을 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조선의 당과 정부, 군대의 지도간부들과 수십만명의 조선인민이 성대하고 뜨겁게 환영해준데 대하여 중국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리설주녀사,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가장 진심어린 인사를 드리며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습근평동지는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김정은위원장동지가 조선당과 정부, 인민을 령도하여 사회주의길을 견지하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실시하며 반도문제의 정치적해결과정을 추동함으로써 자체발전을 위한 훌륭한 환경을 마련하는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연회는 시종 따뜻하고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함께 6월 20일 저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함께 5월1일경기장 주석단관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중천선은 영원하리라》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속에 조중 두 나라 국기가 게양되였다.

출연자들은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아로새기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공화국의 발전행로와 영웅적투쟁사를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놓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환호성이 장대를 진감하고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함께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로 내려가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과 녀사들께서는 따뜻한 인사를 나누신 다음 숙소의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친교를 두터이 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주요대내외정책적문제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내 및 국제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시면서 깊이있는 담화를 하시였다.

조중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70돐을 맞는 올해를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 조중친선관계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가질수 있도록 협동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과 조선반도정세를 긍정적으로 추동해나가기 위한 토의를 계속하시였다.

이어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를

금수산영빈관의 장미원에 특별히 마련한 오찬장으로 안내하시고 격의 없이 한집안식구처럼 다정한 분위기속에 마주앉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1년 남짓한 기간에 5차례에 달하는 상봉을 통하여 심도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훌륭하고 유익한 담화들을 진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하였으며 동지적신뢰를 두터이 하고 남다른 친분관계를 맺는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앞으로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어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는 평양방문기간 김정은동지와 리설주녀사가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하여주고 열정적이고 특별한 영접의례행사들을 성심성의껏 조직하여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오찬은 시종 친근하고 우애의 정이 넘쳐흐르는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과 녀사들께서는 숙소의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친교를 두러이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 우의탑에 꽃바구니 진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는 6월 21일 우의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께서 우의탑에 나오시여 습근평동지와 땡려원녀사를 맞이하시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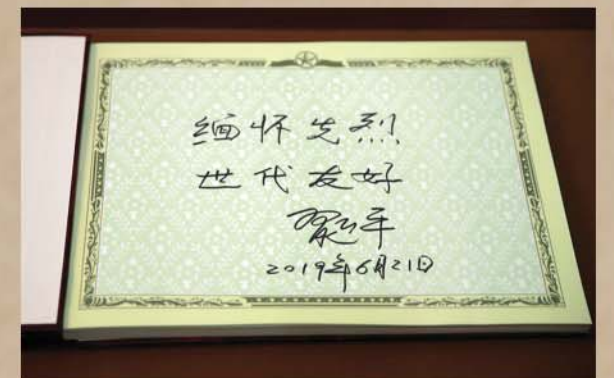
두 나라 국가가 주악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중국 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습근평동지와 땡려원녀사는 우의탑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상징인 탑을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습근평동지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습근평동지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선렬들을 그리며 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 가리

습 근 평
2019년 6월 2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를 따뜻이 환송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국가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6월 21일 오후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습근평동지와

팬려원녀사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환송하시였다.

습근평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는 위대한 새시대의 조중친선을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것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비행기는 15시 30분 평양국제비행장을 출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친서를 읽어

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의 정치적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3돐 뜻깊게 경축



조선소년단창립 7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의 소년단원들이 자기들의 명절인 6. 6절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각 도, 직할시들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3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평양으로 모여왔다.

그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가 6월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축행사 대표들과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시안의 학생소년들이 참가한 대회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조선소년단창립 73돐경축 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람홍색기발아래 300만은 자란다》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과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일군들이 경축행사 대표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장 《원수님 빛내주신 소년단 우리 명절》로 시작된 공연무대

에는 남독창과 합창 《소년단넥타이 매고계세요》, 무용이야기 《오늘도 빛나는 소년단휘장》, 목금과 바얀3중주 《아동단가》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소년단대표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를 방문하고 대성산혁명렬사릉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은 소년단대표들은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그들은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관람하였으며 개선헌년공원, 룡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겁고 유쾌한 휴식의 한때를 보내였다.

사진 홍광남, 글 김선경



백성땅에 자라나는 꼬마시인

황해남도 벽성군에는 4살때부터 시를 지어 《꼬마즉흥시인》으로 불리우는 한 소녀가 있다.

이달이면 11번째 생일을 맞는 벽성군 벽성초급중학교의 안미령학생이다.

남달리 감수성이 빨랐던 그녀는 돌이 되기전부터 무엇이나 한번 보고 들으면 그대로 기억하고 잇는 법을 몰랐다고 한다.

더우기 자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의 뛰어난 발표력은 어른들을 놀래우고 어리둥절케 하였다.

미령은 3살때 음악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미령은 시창을 하거나 련습곡을 치다가 자주 시구절같은것을 곡에 붙여 흥얼거렸다는것이다.

슬며시 들어보니 이미 알던 노래가사는 아니였다.

그렇지만 엉뚱하지도 않고 제법 조리가 있었다.

미령에게서 시인적인 천성을 찾아본 유치원의



황해남도 벽성군 벽성초급중학교 1학년 안미령 (왼쪽으로부터 세번째)



교육자들은 집체적인 토의를 거쳐 그만을 위한 과정안을 따로 만들었다.

하여 미령은 녁달만에 조선글을 다 배우고 신문까지 류창하게 읽을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능한 선생님의 지도밑에 시창작의 길에 들어섰다.

선생님은 미령이가 주위세계와 사물현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거기서 본질적인것을 찾아 형상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미령이가 지닌 문학적재능은 확실히 뛰어났다.

흔히 시인에게 있어 상상력은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령의 상상력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6살적에는 과일나무를 보면서 《배나무야 배나무야》하고는



제3차 전국아동문학작품현상모집과 제21차 전국아동문학상시상모임에 참가하여 상장을 받는 안미령



곤 《너는야 자식부자이로구나》하고 자기의 감정을 즉시에 표현하여 선생님까지 놀래운 그였다.

5살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그에게는 다 쓴 일기장만도 수십권이나 있는데 거기에 적힌 수많은 동요, 동시들은 문학신동의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초기에 지은 작품들이 천진란만한 미령자신의 느낌을 담고있다면 그후 작품들의 내용은 점차 동무들과 선생님, 자기 고향땅에 대한 사랑과 궁지 그리고 그것을 아끼고 빛내여갈 마음으로 승화되었다.

음악과 그림그리기도 즐겨하는 미령이지만 유치원시절부터 그가 제일 좋아하고 즐기는것은 독서이다.

그는 지금도 책을 볼 때면 잠시간까지 아예 잇고 독서의 세계에 빠지곤 하여 할머니와 부모들의 걱정거리를 자아내곤 한다.

하지만 이미 세계아동문학선집을 여러차례나 읽고 모든 작품의 내용을 외우다싶이 하고잇는것을 비롯하여 아는 것이 많을뿐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품성도 활달한 미령이에 대한 동무들과 선생님들의 신망은 매우 크다.

4살때 처음으로 동시 《꽃구름 타고》를 지은 그는 현재까지 500여편의 동시, 동요들을 창작하였으며 그중 근 80편이 신문과 잡지들에 발표되었다.

6살때부터 올해까지 매해 아동문학상을, 지난해에 《우리 교실》문학상을 수여받은 안미령학생은 5년동안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등으로부터 12개의 상장을 받았다.

사진 홍광남, 글 최광호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여

- 류원신발공장에서 -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있는 류원신발공장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기풍을 발휘하여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동력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천수백개의 태양빛전지판들을 기업소청사의 지붕에 설치하여 수백kW의 발전능력을 조성하는것과 함께 공장의 실정에 맞게 태양빛발전설비들에 대한 기술개조를 진행하여 그 효율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전력생산 및 리용정형을 매일 구체적으로 료해하면서 설비들의 점검보수와 정비를 위한 대책들도 제때에 세워나가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생산되는 전기를 구내배전체계를 통하여 생산현장들과 과학기술보급실, 종업원식당 등에 공급하고있을뿐아니라 여유전력을 국가전력망에 넣어 주고있다.

공장에서는 태양열물가열체계도 받아들여 목욕탕과 수영장 등 문화후생시설들에 50℃이상의 더운물이 항상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또한 효율이 높고 도입원가가 적은 분산형지열팽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생산건물과 사무청사를 비롯한 공장의 모든 건물들의 실내온도를 보장하고있다.

사철 여러가지 냄새들이 푸르싱싱 자라는 공장의 온실역시 무난방태양열온실이다.

자연에너지를의 적극적인 리용은 기업소의 경영관리 활동에 많은 실리를 주고있으며 이것은 오늘 전국적으로 유명한 운동신발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공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진 신충일, 글 최의림

국토를 넓혀나간다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청단군 룡매도지구의 간석지를 개간하여 국토의 면적을 늘이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드세차게 내밀고있다.

지난 3월중순에만도 이들은 두개 건설구역의 1차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3 600정보의 새땅을 얻어냈다.

쉬임없는 미세기의 영향과 때없이 조성되는 불리한 일기조건을 박차고 1만 5 000여m의 방조제를 쌓아야 하는 공사의 진행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러나 나라의 만년재보인 국토를 넓여간다는 남다른 공지를 안고사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채석장들에서 굴진속도를 2배로 높이고 새발과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룡전기재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물막이공사에 필요한 흙과 돌을 원만히 보장해나갔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비약과 혁신이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이 일대에서의 방조제건설에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찾아내고 완강히 실천해나갔다.

그리하여 다섯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루 최고 70여m의 방조제를

쌓아가면서 3구역의 1차물막이공사를 끝내였으며 수천m구간의 날바다를 가로막아야 하는 4구역의 방조제공사도 거의 동시에 완공하였다.

이 나날에 170여만㎡의 방대한 토량이 운반되었으며 수만㎡의 장식공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금도 낮에 밤을 이어가며 횡포한 자연과의 격전을 벌려가고있는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줄기찬 노력에 의하여 이곳의 해안선은 계속 바다로 옮겨지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김충복



오석산의 영웅 지배인



오석산화강석광산 지배인 창재룡



천연석재생산에서 전국에 이름난 오석산화강석광산의 종업원들은 지배인 창재룡을 두고 우리 지배인이라 부르고있다.

창재룡은 속도전청년돌격대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주체 76(1987)년부터 광산에서 일해온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청춘의 위훈을 떨쳐가는 나날에 난관앞에 주저할줄 모르는 높은 정신력과 자기 힘을 믿고 그것을 발휘하는것만이 모든 성과의 비결임을 깊이 체득한 그였다.

그의 남다른 일욕심과 능숙한 사업방법은 노동자, 작업반장, 직장장을 거쳐 기사장 그리고 지배인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뚜렷이 발휘되었다.



그가 기사장이 된 초기까지만도 광산의 생산능력은 높지 못했다.

이때 창재룡은 대중을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와 배짱을 가지고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었다.

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기술개건계획을 통이 크게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그리고 오래동안 서있던 상처기를 개조하여 광구들마다 쌓여있던 박토더미들을 없애고 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 나날속에 광산의 생산능력은 해마다 높아져 이전의 최고생산년도 수준보다 10배이상으로 장성하게 되었다.



창재룡은 소탈하고 다심하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것으로 하여 모든 종업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종업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여기에 모든 사업의 성과가 달려있다는 자각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는 그였기에 지배인이 된 다음 첫 사업으로 노동자정양소부터 번듯하게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광산구내와 가정들에 수천그루의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도 힘있게 내밀었다.

하기에 광산의 종업원들 누구나 자기 기업소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지니고 일터마다에서 혁신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설비들을 애호관리

하면서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그리하여 광산은 자행식채석절단기들과 수십대의 대절, 소절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들과 우수한 기능공들을 갖춘 힘있는 기업소, 각지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돌가공제품도 제때에 훌륭히 생산 보장하는 능력있는 기업소로 발전할수 있었다.

오석산화강석광산은 지난해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2년 앞당겨 완수하였다.

나라에서는 청춘시절부터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 세우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는 창재룡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었다.

사진 리광성, 글 오해연



창재룡은 로동자들속에서 우리 지배인으로 불리우고있다.



유치원어린이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로동자가정을 찾아

다양해지는 관광봉사



예로부터 조선은 산 좋고 물 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웅건한 산마루에 천지를 떠이고 높이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명산들이 도처에 절승경개를 이루고있다.
 부전고원과 삼지연, 석담구곡, 룡라도를 비롯하여 내륙에도 명승들이
 많지만 조선동서해안들에도 송도원과 마전, 총석정과 몽금포 등 많은 명소
 들이 있다.



백두산지구관광, 금강산지구관광, 칠보산지구관광, 개성지구력사유적관광,
 서해명승지관광, 마식령지구관광 등 명승지, 역사유적들에 대한 관광
 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있다.



비행기애호가관광, 스키관광, 파도타기관광 등 전문관광을 조직하고있다.



관광객들은 조선의 옛 민속풍습을 직접 체험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땅속에도 룡문대굴, 송암동굴과 같은 지하명승들이 있다.
 조선민족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알맞춘 이 땅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오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각지에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유적유물들도 적지 않다.
 4계절이 뚜렷한 조선에서 관광에 특히 좋은 계절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관광객들은 체류기간 관광봉사기관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형식의 관광을 마음껏 즐길수 있다.
 세계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 문화적뉴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관광업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에스빠냐의 한 관광객은 평양의 거리를 거닐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평양은 현대적미감이 나는 아름다운 도시이며 사람들은 친근하였다고 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관광객은 관광을 통하여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수 있었다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사진 서광, 글 강수정



스물두번째로 열린 국제상품전람회



제2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조선과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벨스카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45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는 금속, 전자, 기계, 건재, 운수, 보건, 경공업, 식료일용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다방면적인 경제협조와 과학기술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무역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사진 리명국



아시아축구련맹 대중축구의 날 운영

아시아축구련맹 대중축구의 날이 평양국제축구학교에서 운영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교육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초급중학교, 소학교 체육교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 학생들의 축구를동체조에 이어 체육교원들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소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의 소축구경기도 있었다.

사진 최원철



장애자 및 애호가 체육경기대회 진행

5월 3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는 장애자 및 애호가체육경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수영과 탁구, 정구로 종목이 늘어난 이번 경기대회에는 시안의 장애자들과 애호가 수백여명이 참가하였다.

다른 경기들도 물론 그러하였지만 특히 조선

에 온 중국의 관광단성원들도 참가한 탁구경기가 장관을 이루었다.

장애자단식경기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1등한 전적을 가진 선수가 결승경기에까지 또다시 올라가 치렬한 경기끝에 자기의 우승회수를 늘였다.



수영경기에 참가했던 애호가들 그리고 부부탁구에호가들의 경기모습들이 펼쳐졌는가 하면 70대이상 애호가부류 단체전경기에서는 80대의 로인이 우승하여 관중들의 찬사를 모으기도 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모든 장애자들과 애호가들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훌륭히 발휘하면서 나날이 높아가는 대중체육열풍속에 행복넘친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사진 신충일, 글 김필



친원



강국

조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 만세!

